

4050위원회 노동본부 건설분과, 발대식 성황리 마무리

- 4050 노동본부 건설분과 국회 대강당서 발대식 성황리 마무리
- “노동안전지킴이 제도 정착, 휴게 쉼터 설치 등 건설 노동자 위한 행동력 보여준 이재명과 산재공화국 오명 지우겠다”
-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4050위원회 노동본부 건설분과가 14일 국회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발대식을 마무리했다.
- 발대식에는 임종성 의원(4050위원회 위원장), 최충민 수석부위원장(4050위원회), 문현군 위원장(4050위원회 노동본부), 임홍순·유호일·송기욱 본부장(4050위원회 노동본부) 등이 참석했다.
- 이날 행사는 안전한 건설현장과 노동현장을 열망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담아 모든 참석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진행됐다.
- 참석자들은 “이재명 후보가 열악한 산업 환경과 산업 안전 불감증 속에 근무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”며 “건설 노동자들이 선봉에서 적극 지원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이어 “이 후보가 산재 예방을 위해 도입한 노동안전 지킴이 제도 정착과 휴게 쉼터를 설치하는 등 강력한 실천력을 보여줬다”며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강한 실천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.
- 특히 ‘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와 노동자 간의 신분 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’과 ‘하도급 업체가 제시한 노예 계약서에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’이라며 건설 노동자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고,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.
- 임종성 의원(4050위원회 위원장)은 왜 이재명 후보여야 하는지 4가지로 제시했다.
- 이재명 후보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 대선투표를 선도한 유능한 대통령, 전환적 공정 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부흥을 이끌 경제 대통령, 실력과 성과가 검증된 준비된 대통령, 서민으로 태어나 서민을 위해 살아온 서민 대통령임을 강조했다.

- 이어 4050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4050세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4050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.
- 이들은 “건설 노동자 앞으로” “노동존중 제대로” “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이재명”을 외치며, 4기 민주 정부 창출의 결의를 다졌다.
-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.(끝)

[첨부사진]



